

가해

사순 제3주일

기초 자료

새로운 성전산, 새로운 바위,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시나이 광야와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

시나이산을 향한 여정 중에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주시고 (탈출 15,22-27)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여주신다. (탈출 16,1-36)

그러나...

"어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탈출 17,3)

=> 이스라엘이 지닌 문제는

하느님의 계획과 그분 존재에 대한 모세의 말을 의심하는 것

모세에 대한 소송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비하였다 해서..." (탈출 17,7)

✓ 시비: 립(히브리어) = 소송

=> 모세의 말이 옳고 그름을 가리는 소송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느님과 모세를 신뢰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소송이 되어 버린다.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호렘의 물

"네가 그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와...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탈출 17,6)

=> 하느님 당신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 증인 앞에서 드러내어 주심



성경 이야기의 결론은 언제나 하느님의 용서로 끝이 난다.

사마리아 사람들

✓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지칭하던 이름

기원전 721년경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한 후,

남아있던 이들과 이주한 이들이 섞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남.

=>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

함께 음식을 먹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꺼려하였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 = 생명을 주는 물

✓ 여인이 말하는 물 = 일상적으로 마시는 물

=> 삶에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를 바라는 우리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예수님

쏟아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물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진정한 바위심을 알려줌

=> 그 물을 마시는 이라야 이집트(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약속된 땅(하느님 나라)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나라로 들어가는 여정 중에
광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더라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머물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끝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로마 5,8)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화답송)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복음 환호송)